

일본, 공공공간으로서 도로공간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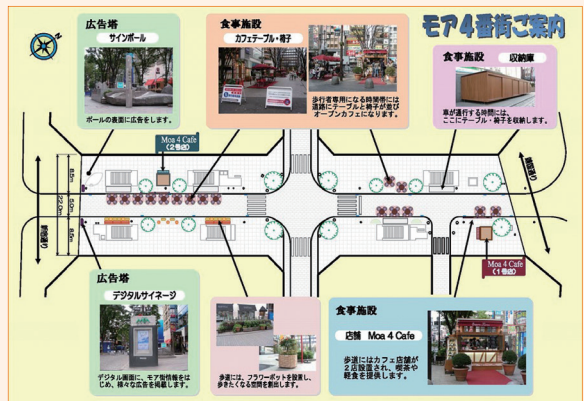
https://www.mlit.go.jp/report/press/toshi05_hh_000379.html
https://www.mlit.go.jp/toshi/toshi_gairo_tk_000099.html

일본 국토교통성이 도시의 도로를 대표적인 공공공간으로 인식하고, 마을재생 또는 지역 활성화 사업 시 도로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 내용을 담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는 도로·공원·수변공간 등 지역의 공공공간을 활용해 매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편안하고 걷고 싶어지는(居心地が良く歩きたくなる)마을 만들기’를 추진 중이며, 공공공간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소관하는 부처로 구성된 합동 지원팀을 통해 세부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원팀은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공적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는 반면, 변화하는 삶의 방식을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사업의 배경으로 설명해 왔다. 지원팀은 공공공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우선적으로 도로공간 활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이벤트 공간으로서 도로공간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라고 가이드라인 수립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역의 공공단체나 에어리어 매니지먼트(エリアマネジメント) 등 지역재생을 추진하는 주체가 도로공간을 활용하고자 할 때 알고 있어야 할 기초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편안하고 걷고 싶어지는 마을(거리) 만들기’의 추진 배경과 내용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사용허가 기준과 조건, 특례와 신청 방법 ▲후쿠이(福井)시, 신주쿠(新宿)구 추진예시 등 참고사례 ▲지역재생 관련 제도 설명 등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가로·지역 활성화를 위해 오픈 카페 사회실험을 진행, 운영한 후쿠이시(좌)와 신주쿠구(우) 사례

출처: 「居心地が良く歩きたくなる」まちなか創出に向けた関係省庁支援チーム. (2022.4.4.) 「居心地が良く歩きたくなる」まちなか創出に向けた道路空間利活用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参考事例, 1, 4.